

## 학교 진로체험 운영 현황: 223개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을 중심으로

-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진로교육활동 중 학생들이 향후 가장 희망하는 진로교육활동 1순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'진로체험'으로 나타남.
-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전국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.
-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학교의 경우, 센터를 활용하지 않는 학교보다 약 1.6~2배 많은 진로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, 학생들이 희망하는 실천적인 진로체험 유형을 실시하는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, 이를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교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사회 진로개발의 중추적 기관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함.

###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#### | 학교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 여부에 따른 진로체험 운영 현황의 차이를 분석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자 함.

- 진로체험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2016년 자유학기제 시행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였으며, 2022년 현재, 전국에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.
-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 내 체험처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교와 매칭하는 것이며, 이외에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심사, 체험처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, 진로체험지원 인력 모집 및 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던 방식과 다르게,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한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음.
- 이 글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률과 활용 여부에 따른 진로체험 운영 횟수 및 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#### | 분석 자료: 교육부 ·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「초·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(2021)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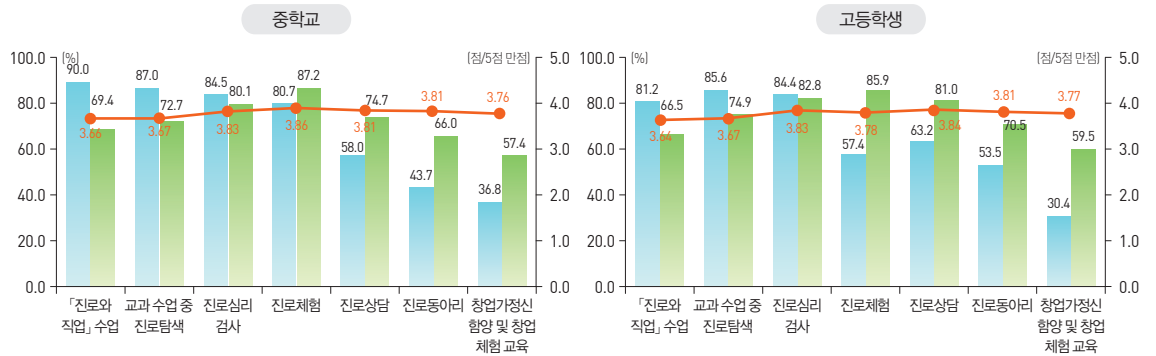
- 분석 자료: 초·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매년 학교급별로 4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학생, 진로전담교사, 담임교사, 학교 관리자(교장 또는 교감)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  - 이 글에서는 학생과 진로전담교사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,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률은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사용함. 진로체험 실시횟수는 전년도(2020년)를 기준으로 조사됨.
- 분석 대상: 중·고등학생 총 18,457명(중3 9,634명, 고2 8,823명), 진로전담교사 총 800명(중고등학교 각각 400명)



## 02 학교 진로교육활동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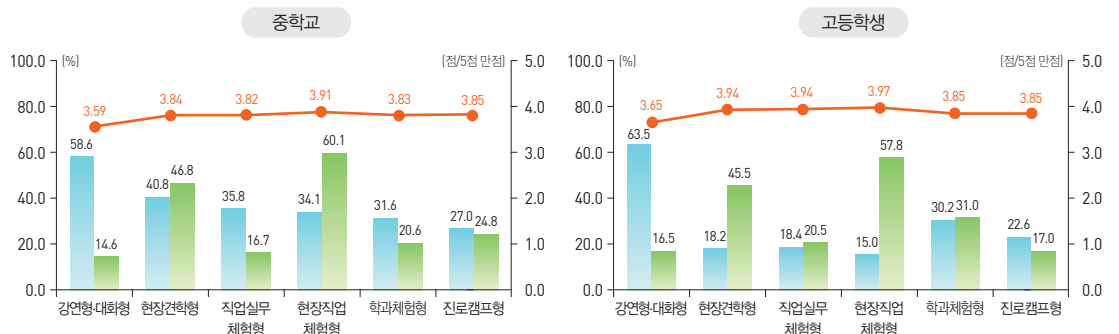
진로체험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로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향후 참여 희망율이 가장 높은 활동임.

- 학교 진로교육활동 중학생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「진로와 직업」 수업이며, 고등학생은 「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」으로 나타남.
-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진로교육활동 1순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'진로체험'이나, 진로체험의 참여율은 중학생 4순위, 고등학생 5순위로 나타남.



[그림 1] 학생의 진로교육 참여 현황 및 만족도, 향후 참여 희망

-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율을 살펴보면, 학생들은 '강연형·대화형'의 진로체험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으나, 도움 정도와 향후 참여 희망도가 높은 유형은 '현장직업체험형'과 '현장견학형' 등이어서 학생들은 현장성이 높은 진로체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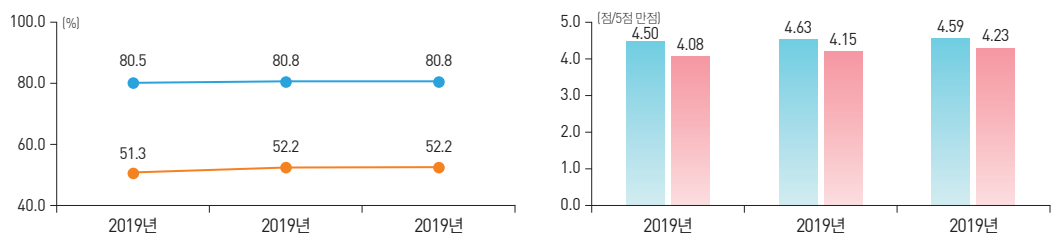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학생의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현황 및 도움 정도, 향후 참여 희망

- 주 | 진로체험은 6개 유형으로 구분됨.
- ① 강연형·대화형: 직업인, 전문가 등의 강연
  - ② 현장견학형: 직업 체험처 및 직업 현장 견학
  - ③ 직업실무체험형: 모의 일터 등 실제 직업과 유사한 직업 체험처 및 직업 현장에서 업무체험
  - ④ 현장직업체험형: 직업 체험처 및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업무체험
  - ⑤ 학과체험형: 고등학교, 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학과 내용 체험
  - ⑥ 진로캠프형: 학교 내외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캠프

## 03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 현황

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률은 중학교 약 80%, 고등학교 약 52%이며,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학교는 센터의 도움 정도를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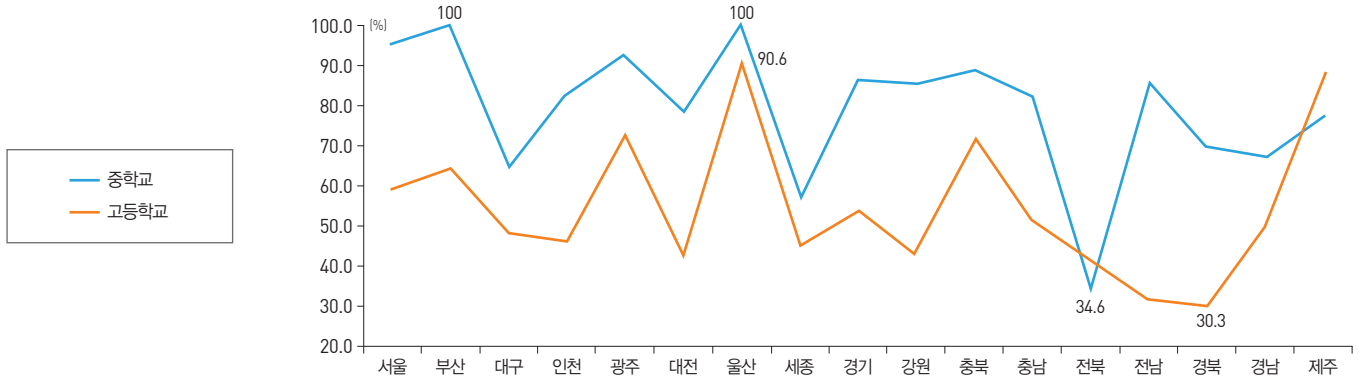
-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학교는 중학교가 80.0%, 고등학교 52.2%이며, 연도별 활용 비율은 유사함.
-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,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도움 정도는 4.23점~4.59점으로 상당히 높음.



[그림 3]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률 및 도움 정도 추이(2019년~2021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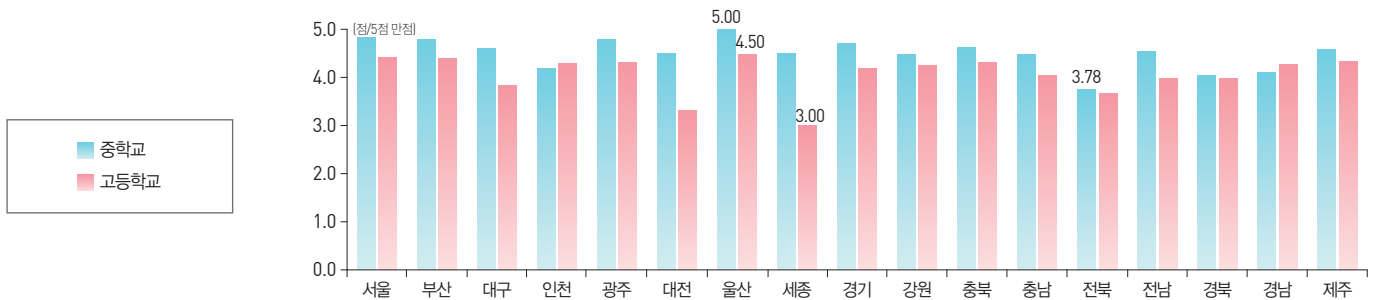
시도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률과 센터에 대한 도움 정도에 차이가 있음.

-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 비율은 중학교 최소 34.6%에서 최대 100%, 고등학교는 최소 30.3%에서 최대 90.6%로, 시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.



[그림 4]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 비율 차이

-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만족도는 중학교 최소 3.78점에서 최대 5.0점, 고등학교는 최소 3.00점에서 최대 4.50점으로, 도움 정도에서도 시도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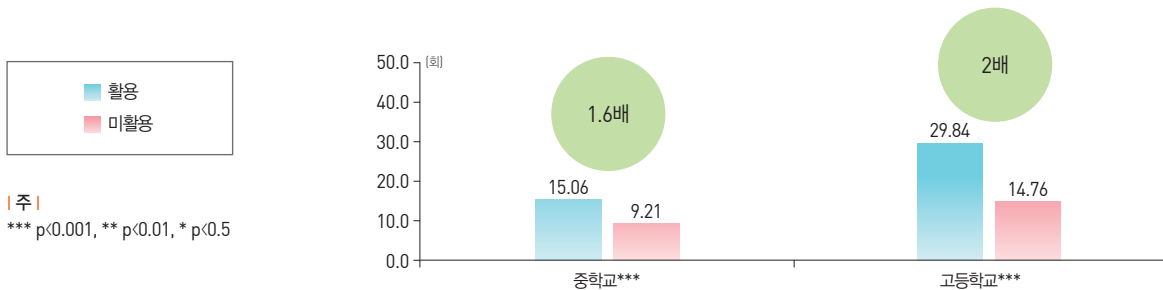


[그림 5]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 만족도 차이

04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체험 실시 횟수 비교

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실시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,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체험을 더욱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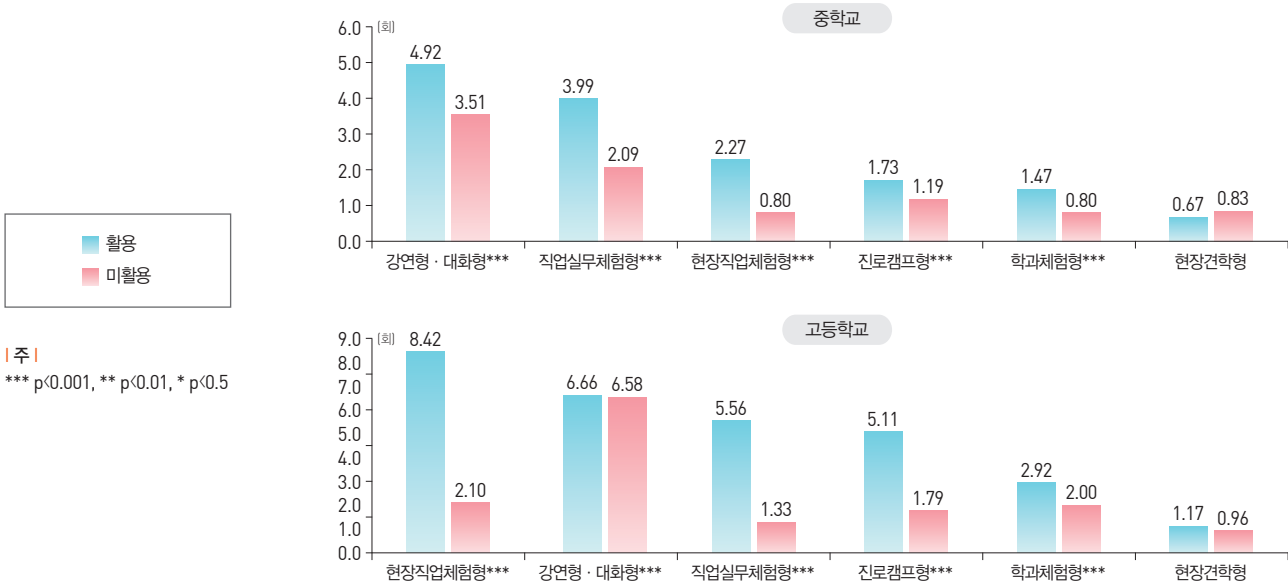
-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중학교는 활용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진로체험을 약 1.6배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, 고등학교는 활용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진로체험을 약 2배 많이 실시하고 있음.



주 | \*\*\* p<0.001, \*\* p<0.01, \* p<0.5

[그림 6]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 여부별 연간 진로체험 실시 횟수

- 진로체험 유형별로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학교와 활용하지 않는 학교의 진로체험 실시 횟수가 중학교는 최대 2.8배, 고등학교는 최대 4.2배 차이가 나, 유형별 격차가 높게 나타남.
  - 중학교의 경우,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학교는 활용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현장직업체험형은 약 2.8배, 직업실무체험형 약 1.9배, 학과체험형은 약 1.8배, 진로캠프형은 약 1.5배, 강연형·대화형은 약 1.4배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고등학교의 경우,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학교는 활용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직업실무체험형은 약 4.2배, 현장직업체험형은 약 4배, 진로캠프형은 약 2.9배, 학과체험형은 약 1.5배, 현장견학형은 약 1.2배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.



[그림 7]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 여부에 따른 진로체험 유형별 연간 실시 횟수

## 05 시사점

- 본 연구 결과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 여부에 따른 진로체험 실시 횟수의 차이를 확인함.
  -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학교의 경우, 진로체험 실시 횟수가 높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실천적인 진로체험의 실시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보다 유의미한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 진로개발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마련되어야 함.
  - 국가 진로교육이 지향하는 '학생의 참여'와 '직업에 대한 체험'에 기반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운영 기반을 견고화해야 함.
  -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 진로개발 중추 기관으로 역할 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.
-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률의 차이는 학생 진로체험 수혜율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, 이는 학생 진로개발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.
  - 학생 누구나 양질의 진로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 진로교육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도별로 안정적이며 체계화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.

정 지 은 (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)